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1(土)	22(日)
호리고 한두차례 비 21/26℃	비 후 맑 2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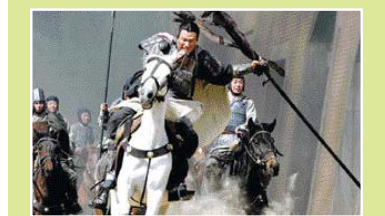
News

- 광양항 물류 협상 지연 ②
- 주말 30~60mm 비 ③
- 내일 밤 남북 축구 대결 ⑧

Books

- '식물도감' 숲속 그늘 자리 ⑭

Entertainment



- '삼순이' 김선아 드라마 복귀 ⑧
- 불행탈출 '합작영화' 봄 ⑨

Wellbeing

- 식품 탐구 - 겨자 ⑬



유망직업 전망 55년 역사와 전통
공유 내로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www.nabun.ac.kr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대통령실장 정정길씨

靑, 7개 수석 교체 ... 대변인 이동관 유임

- | | |
|------|-----|
| 국정기획 | 박재완 |
| 정무수석 | 맹형규 |
| 민정수석 | 정동기 |
| 외교안보 | 김성환 |
| 경제수석 | 박병원 |
| 사회정책 | 강윤구 |
| 교육과학 | 정진곤 |
| 홍보특보 | 박형준 |



정정길 대통령 실장

교수가 임명됐다. 국정기획수석에는 박재완 정무수석이 자리를 옮겼으며 이동관 대변인은 유임됐다. 홍보특보에는 박형준 전 의원이 내정됐다.

대통령실장과 9명의 수석 비서관(대변인 포함)의 출신 지역은 전남 4명(정정길, 정동기, 박병원, 박재완), 서울 3명(맹형규, 김성환, 이동관), 호남 2명(강윤구, 정진곤)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출신의 박형준 홍보특보까지 포함하면 청와대 고위직 10명 가운데 전남 출신이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

전남 출신의 강윤구 사회정책수석은 광주 고등학교와 고려대를 졸업했으며 보건복지부 차관을 거쳐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장을 지냈다.

새로 기용된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의 재산 평균액은 16억3천만원으로 지난 청와대 수석 진용의 평균 재산 36억7천만원에 비해 55%가 감소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정정길 울산대 총장을 대통령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새 정부 출범 117일 만에 청와대 비서진을 전면 개편했다. <프로필 2면>
대통령실장에는 당초 정관계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정정길 울산대총장이 임명됐다.
정무수석에는 맹형규 전 의원, 민정수석에는 정동기 전 대검찰장, 외교안보수석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제2차관, 경제수석에는 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이 기용됐다.
사회정책수석에는 강윤구 전 보건복지부 차관, 교육과학문화 수석에는 정진곤 한양대

韓美 쇠고기 협상 극적 타결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 ... 이르면 오늘 결과 발표

한국과 미국은 13일부터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집중 협의한 끝에 20일(현지시간 19일)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에 근접, 추가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양국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국은 일제 기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시장을 개방하고, 양국 정부가 이를 보증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1일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주에 수입조건을 고시할 방침이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날 "양 측은 상호 만족할 만한 협상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진지한 협의를 했고, 그 결과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한편, 에이미트 등 120개 육류 수입업체 모임인 한국수입육협회(가칭)는 20일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율결의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유통 경로를 문서 등 기록으로 남기는 '유통이력제' 도입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검역원 검역에 앞서 민간의 자체검역을 시행하는 '검역대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연협뉴스



20일 대한조선 해남조선소에서 명명식을 가진 첫 선박 '미스틱'호가 오색풍선을 날리며 웅장한 모습을 뽐내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대한조선 1호 선박 '미스틱' 탄생

어제 해남 조선소서 명명식 ... 27일 노르웨이 선주사 첫 출항

대주그룹 계열사인 대한조선의 1호 선박이 20일 명명식을 통해 '미스틱(MYSTIC)'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건조기간 동안 'HN-1001호선'으로 불렸던 이 선박은 명명식 스폰서로 초청된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부인 최수복 여사에 의해 '미스틱'으로 명명됐다. '미스틱'은 '신비롭고 마력이 있다'는 뜻을 지닌다.

'미스틱'호는 대한조선이 지난 2006년 노르웨이 골든오션그룹으로부터 수주한 8척의 벌크선 중 첫 선박으로, 오는 27일 선주측에 인도돼 곡물·철광석 등을 싣고 처녀 출항에 나선다.

대한조선은 지난 2006년 11월 선주와의 계약체결, 2007년 6월 강재절단(STEEL CUTTING), 2007년 8월 용골거치(KEEL LAYING)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간 지 10개월 만인 남기내에 선박을 인도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미스틱'호가 탄생하기까지는 연인원 7만5천명(Man-Hour)이 동원됐다. 또 투입된 후관물량만 2만4천톤에 달한다. 자동차 1대를 만들 때 1t의 철관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무려 2만4천대분 물량이 들어간 셈이다.

'미스틱'호의 상층부 제원은 전장 289m, 너비 45m로 단식 테니스코트 67개면, 일반 축구장 3개를 그리고도 남는다. 깊이는 24.20m로, 아파트 10층을 포개놓은 규모다.

17만500t급의 '미스틱'호는 이처럼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19만1천m의 곡물이나 철광석을 적재한 채 15.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할 수 있다. 19만1천m³는 1m×1m×1m짜리 큐브 19만1천500개를 실을 수 있으며, 500cc 맥주 3억8천만 잔을 부어야 가득 채울 수 있는 부피다.

김호충 대한조선 사장은 "무엇보다 건조기간 동안 단 한건의 사고없이 무사히 작업을 마치고 선박을 인도하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특히 '미스틱'호는 국제해상오염방지협약(MARPOL), 국제선급연합회(IACS)가 규정한 공중구조규칙(CSR) 기준을 충족시킨 국내 최초의 친환경 선박이라는 점에서 신생조선사인 대한조선의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 받게 됐다"고 말했다.

첫 선박인도를 계기로 대한조선의 성장세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해남조선소 1도크에서는 두번째 선박공정이



명명도끼를 내리치고 있는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부인 최수복(왼쪽) 여사와 김호충 대한조선 사장.

70%를 웃돌고 있어 오는 8월말 선주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대한조선은 올해에만 모두 5척의 케이프사이즈급 벌크선을 인도한다.

<2면에 계속>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피부과학, 식물 유기자료를 주춧돌로
100% 천연 성분, 대량 생산 가능 제품

IOPE